

아동지 르네상스시대 맞는 美출판계

스포츠지에서 문학지에 이르기까지 성인잡지 못지 않은 활기 보여

이희재

번역가

요즘 미국의 잡지계는 영화·TV·비디오 등의 전파매체에 압도당해 광고물량이 줄어드는 등 고전하고 있지만 아동 잡지만은 예외다. 현재 미국에는 120여개의 아동 잡지가 발행되고 있으며 전체 미국 아동의 57%가 1권 이상의 잡지를 구독하고 있다. 이들 잡지는 어린이만의 세계를 다양한 각도에서 파고들어 성공을 거두고 있다.

지난 19세기의 전성기 이후 아동 잡지가 다시 활성화될 조짐이 나타난 시기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월드」(National Geographic World)와 우주탐사 및 천문학 잡지인 「오디세이」(Odyssey)가 대성공을 거둔 70년대다. 80년대 들어 아동들도 성인 못지 않게 다양한 세계를 갖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스포츠지에서 문학지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아동 전문지가 봇물처럼 쏟아졌다.

미국의 경우 아동잡지는 거의가 정기구독이다. 아이들은 “자기 이름이 적힌 자기만의 우편물이 도착할 때 뿌듯함을 느낀다”고 여러 종의 아동지를 내는 에드 프레스의 도널드 스톤 제작이사는 말한다.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것은 종합지에 해당하는 「하일라이트 포 칠드런」(Highlights for Children)과 「보이즈 라이프」(Boy's Life)다. 「크리켓」 발행사에서 최근 더 어린 독자를 대상으로 한 동종지 「레이디버그」(Ladybug)를 내놓았다.

자연사와 야생동물을 다루는 「레인저 리크」(Ranger Rick), 「OWL」, 아주 유년층을 대상으로 한 동종지 「유어 빅 백야드」(Your Big Backyard)는 호평을 받고 있다. 더욱 심층적인 자연잡지 「주북스」(Zoobooks)는 매호 한 동물이나 동물집단을 특집으로 꾸민다.

이야기를 좋아하는 8세~12세의 아동은 전세계 어린이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담은 「쇼트스토리 인터내셔널」(Short Story International)을 읽을 수 있으며 글쓰기를 열망하는 꼬마작가들은 「스톤 수프」(Stone Soupe) 「머린즈 펜」(Merlyn's Pen)을 받아볼 수 있다. 91년 9월에 창간된 「스파크!」(Spark!)는 3세~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상상력을 촉발시키는 새로운 놀이들을 소개한다.

잡지를 읽는 어린이는 주의집중력이 향상되고 그것은 곧바로 독서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미국 출판인들은 아동잡지의 활성화를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英 옥스포드 아동백과

작년 9월 옥스포드대 출판사에서 출간된 「옥스포드 아동백과」가 영국 출판계의 전반적인 불황에도 불구하고 35,000질 이상 팔려나가 올 4월 미국에서도 시판될 예정이다.

이것저것 알고 싶은 것이 많은 8세~13세의 아동을 위해 만들어진 이 백과사전은 성인 백과사전처럼 모든 분야를 망라하려는, 불가능한 꿈을 추구하지 않았다. 어디까지나 아동이 실제로 알고 싶어하는 주제들을 빠짐없이 담는데 주력했다. 그러기 위해 교사·학부모·사서들로부터 아이들이 자주 묻는 인물·사전·개념 등을 적어받았고 여기서 나온 70권의 노트가 표제어의 밑바탕이 되었다.

아동 백과사전에는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다. 아이들은 과학기술에 관심이 많고 예술에 관한 어휘들을 잘 모른다. 학교에서 미술 지도는 해도 유명화가의 작품을 감상하는 훈련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상주의나 초현실주의 같은 항목은 아이들에겐 무의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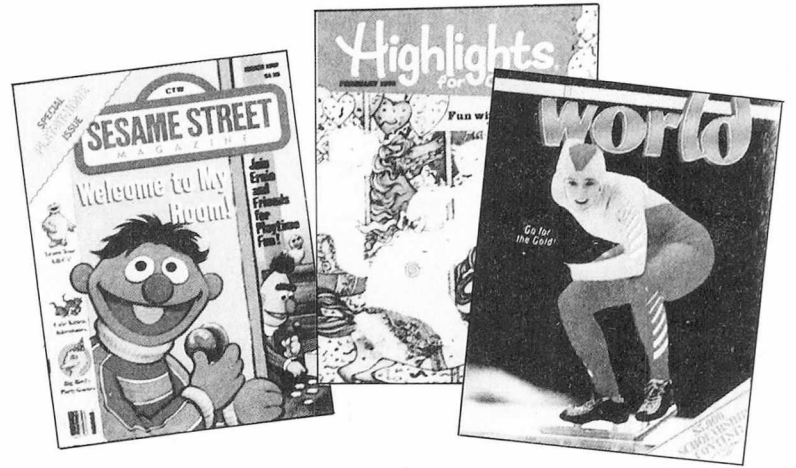
옥스포드대에서 지난 50년대에 펴낸 「주니어 인사이클로피디어」는 주제 단위로 항목들을 엮었지만 아이들은 그것을 불편해했다. 그들은 ‘무선」(無線)을 곧바로 찾으려 하지 ‘통신수단」이나 ‘과학」으로 우회해 들어갈 수 있는 개념 체계를 못 갖고 있었다.

TV나 컴퓨터에 익숙한 세대들의 감각을 충족시키기 위해 3,000여장의 그림·지도·도표를 곁들여 작성했으며 주제에 맞는 수천 장의 사진을 정성들여 찾아냈다.

영어권 아동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워낙 내용이 충실하고 옥스포드라는 지명도가 작용한 탓인지 외국 출판사들의 주목을 끌어 이미 그리스어, 히브리어, 폴란드어, 터키어, 스페인어, 불어판 계약이 체결되었다. 100명의 작가와 60명의 주제별 전문가들이 4년 동안 정성을 쏟은 7권(1권은 색인)짜리 옥스포드 아동백과는 이제 그 투자의 결실을 보고 있는 셈이다.

영원의 백과사전 펴내는 獨 자울社

「모든 시대 모든 민족 조형미술가의 보편적 미술가 백과사전」(약칭 AKL)이라는 장황한 이름의 미술대백과를 들여본 사람도 있을 것



요즘 미국에서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아동잡지들.

이다. 이것은 구 동독이 국가의 위신을 걸고 기획한 장대한 출판계획이었다. 1907년부터 올리히 티메(1885~1922)와 펠릭스 베커(1864~1928)가 공동으로 편찬을 개시하여 양차대전과 히틀러 시대를 거쳐 1950년에 완결된 전 37권의 「고대로부터 현대까지의 조형미술가의 보편적 백과사전」(약칭 「티메 베커」)과 그 뒤를 이어 한스 포르마가 편찬하여 1953년부터 1962년까지 간행된 「20세기 조형미술가의 보편적 백과사전」(약칭 「포르마」) 전 6권을 통합하여 전면적인 개정판을 내는 것이었다.

동독 최대의 미술출판사인 제만에서 40명의 편집자와 전세계 120개국에서 1200명의 집필자를 동원하여 약 50만명의 미술가를 망라하는 전 30권의 사전을 4,50년에 걸쳐서 간행할 예정이었다. 1969년부터 간행된 AKL은 20년간 1200만 마르크를 쏟아부었지만 3권밖에 내지 못하고 동독의 멸망과 함께 미완성으로 끝나고 말았다.

이것을 독일의 자울社가 이어받아 지금까지 기간권을 포함하여 5권을 내놓았다. 앞으로 매년 2권씩 간행하여 각권 8000항목씩 모두 약 50만 항목을 전 60권에 수록, 30년 안에 완결할 예정이다.

1993년부터는 CD-ROM판도 나온다. 즉 「티메 베커」와 「포르마」의 전 데이터에 새로운 AKL의 데이터를 덧붙여 매년 개정한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사전류, 전문서 약 6만 점의 자료를 수록하고 국내의 미술관의 자료를 집대성하여 데이터뱅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인쇄화된 백과사전이 완성되더라도 데이터뱅크 구

축작업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또 「티메 베커」 전37권과 「포르마」 전 6권의 포켓북 엮기판도 나올 예정이라고 한다. 발행처는 1984년 그림형제의 「독일어사전」 전 33권을 포켓북으로 내 성공을 거둔 dtv사다. 당시 「독일어사전」의 포켓북 발행은 엄청난 도박으로 여겨졌지만 초판 1만질은 출판 전 예약으로 매진되고 1991년까지 23,000질이 팔려나갔다.

「티메 베커」와 「포르마」를 합치면 모두 43권이 되지만 dtv판은 매우 얇은 종이를 써서 이것을 25권에 담을 예정이다. 물론 빠지는 내용은 없다. 금년도 프랑크푸르트 서적전시회에 선보이기 위해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술백과사전 하나에 쏟는 독일인들의 열의에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중국의 주역 붐

중국에서는 요즘 ‘周易 붐’이 몰아치고 있다. 상해에서는 최근 2년 사이에 수십 점의 주역관련서가 쏟아져나왔다. 서점 매장마다 주역 학술서는 물론 手相, 人相, 占卜, 점성술 서적이 잔뜩 쌓여 있다. 주역을 연구하는 아마추어 학자들의 모임도 많이 생겼다. 광주에서는古籍 서점이 펴낸 백몇십권짜리 「周易大伝新注」가 1주일만에 매진되는 이변이 일어나기도 했다.

작년 중국에서 강행된 이 분야의 책들은 다음과 같다. 「易林通說」(華夏출판사) 「周易導讀」(巴蜀書社) 「周易探源」(華僑출판사) 「周易經傳異同」(湖南사범대학출판사) 「周易關眞」(三奏출판사) 「大易探微」(青島출판사)

바른글방은 책 만드는 일의 전문성을 잘 아는 편집회사입니다

한권의 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선불리 한 두 분야라고 말할 수 없는 전문지식이 동원되게 됩니다.
정보를 모으고 분석 평가하여야 하는 정보분석학부터 시작해서
국제화 시대에 맞춰 필요한 외국어의 지식,
올바른 우리말을 제대로 구사해야 하는 국문학,
날로 고도화 되는 컴퓨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처리학에,
독자대중의 동향을 파악해야 하는 심리학에다가
경제원칙에 입각한 경영을 위한 경영학,
독자의 미적 수준에 떨어지지 않아야 하는 디자인,
제작과정에서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인쇄학,
그리고도 광고학과 판매전략 등
분야가 다른 다양한 전문분야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올해로 여섯째 동안 책 만드는 일을 해온
서른 한 명 바른글방과
미필적 고의 식구들은
맡겨주시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감히 자부하고 있습니다.



▶<바른글방>에서는 이런 일을 합니다.

- 출판기획상담 • 단행본 • 잡지 등 기획출판 대행 • 운문 • 교열 • 교정 대행 • 본문편집
- 단행본 • 아동물 • 참고서 등 전산조판 입 • 출력

▶<미필적 고의>에서는 이런 일을 합니다.

- 표지 • 본문 등의 디자인 • 출판광고 디자인 • 일러스트 • 출판제작대행

▶<바른글방>에는 이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 원전편집 가능한 KCE 편집인력기 SUPER WRITER 15대 • 300LP 1대
- ECRM 인화식 및 필름 출력기 1대

출·판·전·문·집·단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37-9
한샘빌관 3층
전화 325-5366 (대)
325-5363~5
325-6484~5
팩시 325-5362

디·자·인·전·문·집·단



「易理新研」(文津출판사) 「易經門窺」(學苑출판사) 「周易解題及其讀法」(上海서점) 「中國巫術」(上海三聯서점) 「周易研究論文集」(北京사범대학출판사) 「巫術-周易의文化智慧」(浙江古籍출판사) 「中國古代民間方術」(安徽인민출판사) 등.

중국 출판 관계자들은 이런 주역 붐의 원인으로서는 한의학이나 氣功 붐의 영향을 들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정치적 미래의 불투명성에서 원인을 찾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경제성장으로 부를 쌓은 개인이 늘어나고 사회 전체의 유동성이 증가하는 데 반해, 천안문 사태에서 보듯 전세계적으로 몰락한 공산주의 이념을 아직도 완강히 고수하는 중국 지도층에 대한 비전을 개인적으로라도 마련하려는 욕구를 갖게 마련이라는 진단이다.

여기에 주역의 학술적 가치를 인정하는 자연과학자와 철학자들의 주역 연구 열기가 고조되면서 대학생이나 지식인들도 이런 류의 책들에 대한 거부감을 떨치고 호기심에서라도 이런 서적들을 자주 찾고 있다.

사실 지극히 현실적인 중국인에게 미래는 서양인들의 내세에 못지않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국내에서 최근 일련의 예술 관련서적들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내리는 것은 같은 동양인으로서의 현실적 관심과 정치적 불안정이라는 2가지 점에서 중국의 주역 붐과 정확히 대응되는 현상일지도 모를 일이다.

日 91년도 번역 베스트 10

일본에서 간행되는 번역 전문지「번역의 세계」2월호에서 91년의 양질의 번역서 455권을 특집으로 소개했다. 전문가의 앙케트 회답을 집계하여 장르별 베스트 번역서를 선출한 자료다. 장르는 영미문학, 유럽문학, 미스터리, 논픽션, 철학·사상, 인문·사회·자연과학 등 15장르.

장르를 초월한 종합특점 순위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피네건즈 웨이크」(제임스 조이스·河出書房新社) (2) 「10 1/2장에 적힌 세계사」(줄리언 반스·白水社) (3) 「IT」상하(스티븐 킹·문예춘추) (4) 「악동일기」(A. 크리스토프·角川書房) (5) 「고독의 발명」(폴 오스터·新潮社) (6) 「미궁 속의 장군」(가르시아 마르케스·新潮社) (7) 「문터의 찬란함」(자시다운·JICC출판국) (8) 「취라기

공원」상·하(마이클 크리던·角川書房) (9) 「디퍼런스 엔진」(W. 김슨 외·角川書店) (9) 「아벨라시온」(B. 사이티스·國書刊行會)

이밖에도 함께 수록된 「91년 번역서 데이터 파일」은 엔터테인먼트용 서적을 중심으로 한 흥미깊은 자료를 담고 있다.

일본의 아동전집들

환경의식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고 볼 때 책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일은 더없이 중요한 일이다. 일본에서는 지구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아동전집들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학습연구사의 「지구환경과 우리의 생활」 전 5권, 偕成社の 「우리들의 지구를 지키자」 전 8권, 포푸라사의 「지구환경문제시리즈」 전 7권이 현재 뜨거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런 책들은 특히 교육효과가 높기 때문에 학교도서관에서 적극적으로 구입하고 있다.

올봄에도 각 아동전문 출판사에서는 참신한 기획으로 새로운 전집물을 소개할 예정이다. 먼저 포푸라사에서는 「지구환경문제시리즈」의 호평에 힘입어 저학년용 대상으로 한 그림책 스타일의 「환경독본」 전 10권을 발매한다. 역사만화는 일본 아동들이 즐겨 읽는 분야지만 「만화 조선의 역사」 전 16권이 안우식씨의 번역 감수로 나온다. 이 책은 특히 민중들의 생활에 초점을 맞춰 전문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현실 세계를 일반 성인을 위한 책처럼 사실적으로 담아내는 아동서가 요즘 주목을 끌고 있다. 岩崎書店의 「철도가 좋아」 전 10권이 대표 사례다. 국민학교 저학년부터 읽을 수 있는 사진그림책이지만 일본 순철도차량의 내부 소개, 외국과의 비교 등 어른들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이다.

현대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직접 풀어주는 전집들도 있다. 岩崎書店의 중고교생 상대 화시리즈 「어른이 된다는 것」 1기 전 4권이 그 하나다. 「담배」 「술」 「약물」 「다이어트」 가 테마로 「에이즈」 「짐」 등이 속간된다.